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현대소설 교육방안 연구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선아

중학교 현대소설 교육방안 연구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선아

인 준 서

김선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2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나기〉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표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은 시대가 지나며 계속 변해왔다. 교과서는 문서화 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자료인데,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황순원의 단편 소설 특징으로는 순수 서정성을 들 수 있다. 그의 단편소설 중 〈소나기〉에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한 시적인 인상, 그 문장에 담겨 있는 시각적 이미지, 상징적인 소재, 정서가 서정성을 유발한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는 2차 교과서부터 현행 2011 개정 교과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그 문학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나기〉가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점에 초점을 두어 각 교육과정 시기 별 교육내용과 그것이 구현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각 시기 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교과서 학습활동을 분석해 그 교육내용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교육계의 화두인 자유학기제와 〈소나기〉를 연계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고, 〈소나기〉의 새로운 문학 교육 관점인 주체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양한 활동과 상황을 고려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소나기〉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i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6
II. <소나기>의 교과서 수록 양상 분석	9
1. 선행 교과서 수록 양상	10
(1) 문학 영역 교육 내용	10
(2) 차수 별 교과서 활동 분석	14
2. 현행 교과서 수록 양상	37
(1) 교과서 수록 현황	37
(2) 교과서 활동 분석	42
3. 수록 양상의 논의점	52
III. <소나기>의 교수·학습 방안	54
1. 교수·학습 상황	55
(1) 성취기준	55
(2) 교수·학습 주제 요인	58
2. 교수·학습 방안	61
(1) 교수·학습 모형	61
(2)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63
(3) 차시별 교수·학습 자료	67
IV. 결론	73
참고 문헌	76
ABSTRACT	80

표 목 차

<표 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	13
<표 2> 4차 교과서 학습활동	15
<표 3> 5차 교과서 학습활동	19
<표 4 > 6차 교과서 학습활동	21
<표 5> 7차 교과서 학습활동	24
<표 6>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27
<표 7> 2007 개정 교학사 교과서 학습활동	30
<표 8> 2007 개정 좋은책신사고 교과서 학습활동	34
<표 9> 2011 개정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현황	37
<표 10> 〈소나기〉 수록 교과서의 대단원과 대단원 학습목표	39
<표 11> 〈소나기〉 수록 교과서의 단원 구성	39
<표 12>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부분	40
<표 13> 성취기준 별 〈소나기〉 수록 교과서	40
<표 14>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체계	41
<표 15>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42
<표 16> 교학사 교과서 학습활동	46
<표 17> 좋은책신사고 교과서 학습활동	50
<표 18> 교수·학습 관련 성취기준	55
<표 19> 연계 성취기준	57
<표 20>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와 예	61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나기〉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는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부터 현재 2011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까지 빠지지 않고 수록되었다. 이는 제2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이들부터 현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이들까지, 국민의 대부분이 이 소설을 접해보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소설이 국정 교과서부터 검정 교과서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된 것은 〈소나기〉가 문학적인 가치와 교육적인 가치 둘 다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순원의 단편 소설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순수 서정성이다. 서정 소설은 서사 문학의 관점을 행동으로부터 내면 의식으로 옮겨 놓았으며, 행동적 플롯보다는 장면과 분위기가 중시되고 인간 내면의 감각이나 지각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인간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시적 언어와 자연계 사물의 은유적 사용, 공간의 상징성 등이 서정 소설의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¹⁾ 〈소나기〉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한 시적인 인상,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시각적 이미지, 상징적인 소재, 정서가 서정성을 유발한다.

지금까지 문학 교육에서는 〈소나기〉를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즉 텍스트의 줄거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문학 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문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주

1) Charles E. May, 《단편소설의 이론》, 최상규 옮김, 정음사, 1990, p.312-328,

체적인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문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이해와 감상을 교육 내용 안에 넣으려 노력하여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을 추가하였다. 이 성취기준 하에 〈소나기〉가 수록된 교과서들도 편찬되었는데, 이는 〈소나기〉가 문학 이론과 지식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임을 말해 준다.

문학작품 감상의 본질은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작품의 세계 속에 자신을 몰입시킬 수도 있고, 작품을 읽고 현재의 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볼 수 있다. 즉 문학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이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인간상과 관점, 이념 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갖고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개성 있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적 인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2016년도부터 전면적인 자유학기제 정책²⁾이 실시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끼를 찾고 꿈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자유학기제에서도 역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과 삶의 자세로 살아나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력, 감상력, 사고력, 비판력,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인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정책 과정에서 〈소나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수·학습 할

2) 정부는 2013년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라고 자유학기제를 설명하였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소나기〉는 2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우리 공동체에게 첫사랑의 추억이라는 서정적인 동질감을 주었다. 이러한 동질감을 갖고 있는 〈소나기〉를 계속해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의 문화의 정서 등을 공유하게 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앞선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문학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제외하고서는 해당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없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이해에 토의 활동과 창작 활동 등을 더해 주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보겠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를 계획하고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선행연구로 〈소나기〉의 기존 연구와 학습자의 주체적인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황순원의 〈소나기〉에 관한 다양한 교육 연구이다.

배운민³⁾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 중 〈소나기〉가 수록된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교육 내용은 문학적 아름다움, 상징적 소재, 인물의 성격 등이다. 이에 맞추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교육내용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활동하는 학습을 제시하였다. 한 소집단이 하나의 과제만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이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남는다.

김서영⁴⁾은 성장 소설의 정의와 함께 성장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의에 대해

3) 배운민, 〈중학교의 〈소나기〉 소설 교육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4) 김서영,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 :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알아보았다. 박완서와 황순원의 소설을 분석하여 그들의 소설이 성장 소설로의 면모와 문학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그 중 〈소나기〉에서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이는 부분은 소년이 남성성을 인식하고 사랑이란 감정에 눈뜨는 과정과 소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년의 태도라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성적인 성장으로까지 나아가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작품 중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소나기〉를 성장소설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진주⁵⁾는 현대 사회가 인쇄 매체 중심 문화에서 다양한 매체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문제제기 하였다. 이렇게 변한 현실에 발맞추어 〈소나기〉를 실제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대중 매체인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을 활용하여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비교·대조에 관한 내용이 지도안에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전미진⁶⁾은 음악극과 〈소나기〉를 통합해 음악극 창작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소나기〉의 주요 장면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창작할 수 있음을 제시한 활동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이 아닌 음악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논문이기는 하나 창작 활동과 장르 연계, 그리고 교과 통합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도방안이 나올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둘째, 주체적인 학습자를 위한 소설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희정⁷⁾은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토의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학적 지식이나 작품의 분석보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대한

5) 한진주, 〈매체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소나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6) 전미진, 〈교과통합을 통한 음악극 〈소나기〉 만들기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7) 이희정, 〈초등학교 반응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문학 작품을 향유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독자 간의 대화, 학생들이 자신의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우신영⁸⁾은 학습자가 공교육을 받는 동안 한 편의 소설작품에 대해 온전히 자신의 해석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지적하며 소설 해석능력의 위치를 부각시켰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석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나, 대부분의 학생이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를 해독하기가 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석학의 이론을 토대로 현대소설 해석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자군 별 해석양상을 분석하여 해석교육을 설계하고 해석 평가의 준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실제적인 면이 강함을 알 수 있고, 학생들이 해석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광화⁹⁾는 기존 문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성주의 문학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수업을 비판하였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문학 수업을 위해 토의·토론방식을 강조하였다. 기존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듈 토의·토론방식과 학급 전체 토의·토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해보면 첫째 황순원의 <소나기>에 관한 교육 연구는 문학의 지식,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보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집단 활동과 타 교과와의 연계 활동 등을 이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상하였으나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둘째 주체적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8)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 : 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9) 이광화, <모둠토의활동을 활용한 현대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노새 두 마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해보았다. 토의나 토론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학생들의 주관에 담긴 의견을 나누어보며 작품을 해석하면 더욱 문학 향유와 문학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소나기> 교육 연구 중 한진주와 전미진의 연구는 교과통합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서 유용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소나기>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주체적인 관점의 이해와 감상이 위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를 보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의 한계를 모두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소나기> 교육의 또 다른 관점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소나기>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문학을 교수·학습 하는 데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절차가 존재한다. 최근 문학 수업에 특화된 교수·학습 모형으로 개발된 것 중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3가지 층위의 대화를 중시한다. 이전에 나온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해석과 감상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같으나 근거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이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키워드라 볼 수 있다.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대화는 개인과 사회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이를 타인과 나누어보는 활동을 통해 더욱 타당도가 높은 주체적인 작품 감상과 평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 보인다. 따라서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토대로 <소나기>의 교육 방안을 구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먼저 선행 교과서의 수록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기

존 교육과정에서는 〈소나기〉가 어떻게 교수·학습 되도록 구안되었는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선행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부터 현행 직전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까지를 범위로 한다. 〈소나기〉가 2차 교육과정 때부터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문학교육 자체는 교수요목기 교육과정부터 3차 교육과정까지 국어의 하위 영역 중 ‘읽기’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읽기 영역 안에서 문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문학’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기에 4차 교육과정부터 분석하도록 하겠다. 〈소나기〉가 각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성취기준 아래 수록되었으며, 학습활동이 성취기준과 연관되어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선행 교과서의 분석 후, 현행 교과서의 수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교과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로 총 14종의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그 중 몇 종의 교과서에서 〈소나기〉를 수록하고 있는 지 분석한 후, 선행 교과서의 분석과 비교해 변화한 바를 알아보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하는 학습목표와 그에 따른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II장의 연구대상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원문과 해설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원문, 그리고 각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III장에서는 II장의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소나기〉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계획하여 보고자 한다. II장에서 분석한 내용 중 〈소나기〉를 교수·학습 했을 때의 문제점과 앞으로 교수·학습 할 때 강조할 점을 확인해보고,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조점을 넣어 구체적인 지도안을 구안해 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과 학습활동을 구안하여 교

육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II. 〈소나기〉의 교과서 수록 양상 분석

교과서 수록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정전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전¹⁰⁾은 기준이 될 만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동시에 정전 안에는 뛰어난 가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 그 자체가 모든 판단과 문화 활동의 기준이 된다. 즉, 가치의 척도나 행위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라는 의미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 정전을 정전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하면 정전도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전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나기〉는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으로서의 사랑을 비사회적이고 비도시적인 전원 및 향토의 이미지와 연결하면서 중학교 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렸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학 내 하나의 정전으로 이념화되었다¹¹⁾.

그러나 김동환¹²⁾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소나기〉가 원본과 정본, 파생본에 대한 탐색이 없이 교육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소나기〉의 초본을 발견하여 그에 따른 파생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고 정본을 설정하였다. 그가 설정한 초본은 1953년 11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 잡지 《협동》이며, 연구를 통해 설정한 정본은 1956년 12월 중앙문화사에서 간행된 단편집 《학》이다. 초본과 정본의 비교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제목의 변화, ‘밤’이 ‘호두’로 변화된 부분과 결말 부분이다. 먼저 제목은 초본에서는 ‘소녀’였다가 정본에서 ‘소나기’로 바뀌었다. ‘밤’이 ‘호두’로 변화하는

10) 라영균, 〈정전과 문학교육〉, 《국어교육》 제2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135-138.

11) 김예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의 구현 양상〉,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p.65.

12) 김동환, 〈초본(初本)과 문학교육 - 〈소나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것은 ‘호두’가 지닌 상징성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한다. 북유럽에서 젊은 남녀가 ‘호두’를 가지고 사랑의 점을 치는 풍습, 로마에서는 결혼식에서 호두를 던지는 습관들이 ‘밤’에서 ‘호두’로 변하게 한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말부분은 작가의 입장에서 고심한 대목을 보여준다. 작가는 익히 알려진 결말에서 한 줄 추가를 하여 결말을 작성했었으나 조언을 듣고 삭제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변화된 장면과 소재들은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에 학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흥미롭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소나기〉의 정본은 1981년 문학과지성사에서 간행된 《학/읽어버린 사람들》로 설정한다. 물론 다양한 파생본이 있어 정본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김동환의 논문에서도 이 판본이 정본으로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황순원의 생애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개정본이라는 점,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 후대에까지 가장 많이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지성사 본을 정본으로 보는 것¹³⁾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이를 정본으로 설정하겠다.

1. 선행 교과서 수록 양상

(1) 문학 영역 교육 내용¹⁴⁾

교육과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하였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의 양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차에서 3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생활과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주제별 단원 구성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차 교육과정 《중학

13) 박태일, 〈황순원 소설 〈소나기〉의 원본 시비와 결정본〉,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14)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내용은 손영애의 책(《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박이정, 2014.)과 최미숙 외의 책(《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3.)을 참조하였다.

국어 3-1》의 전체 목차는 ‘새로운 신념 / 이 한 마음 / 생각하는 시간 / 끝없는 만남 / 문학이야기(3)’으로 글 제재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나타낸다. 1차와 2차의 교육과정에도 문학은 글의 제재로 활용되었으나, 학생들의 일상 언어생활을 더욱 강조하였다. 3차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이나 언어 분야의 교과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강조하지 않아 국어과의 경우 4차 교육과정부터 학문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3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가치관 교육의 강화이다. 1969년도 국민교육헌장의 선포를 계기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 정권인 박정희 정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 국민의 자질로 애국심과 협동정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4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81년도부터 1987년도로,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4차 교육과정에서 특징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3분법의 영역구분이다. 1차 교육과정부터 3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어과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였는데, 4차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바뀐 것이다. 그 중 ‘문학’은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을 보면 문학 지식 내용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에서는 갈등, 인물의 성격, 소설의 배경 등의 지식을 아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다.

5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87년도부터 1992년도로, 국민의 기초교육과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4차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국어과의 영역이 3분법에서 6분법(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영역구분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데, 4

15) 김예니, 위의 글, p.70.

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의 한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여 언어사용기능에 관한 교육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문중심의 교육이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였고, 학생의 언어사용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였다. 문학의 경우 4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강조됨을 알 수 있지만 5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즐겨 읽고, 이해하고, 경험과 결부시키며 창의적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하는 것, 즉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밝히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92년도부터 1997년도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5차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방향의 개발이었다. 국어과 교육에 대한 내용은 5차 교육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체제 측면에서 ‘내용체계’를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성격’항의 신설, 5차 교육과정에서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한 것을 ‘방법’과 ‘평가’로 나누어 제시, ‘내용’항에 ‘내용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내용체계는 국어과에서 지도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질, 원리, 실제’로 구성하였다. 문학의 경우 이 내용체계가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의 이해,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로 나누어진다. 내용체계에 따라 교육할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중학교 1학년 교육내용에는 ‘(8) 문학 작품에서 감동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한다.’처럼 독자를 새롭게 인식한 것을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97년도부터 2007년도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언어 습득의 순서와 명칭을 고려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변경하였다. 내용체계는 ‘본질, 원리, 태도, 실제’로 구성하였으며, 문학의 경우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로 나누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독자에 관한 인식은 7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9학년 교육내용에는 ‘(7)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 다.’가 있다. 또, 창작에 관한 교육내용은 전문적인 문예 작품의 창작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을 강조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수시 개정 정책에 따라 8차가 아닌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개정의 배경은 7차 교육과정의 내적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언어 환경의 변화들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과 체제는 7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내용체계는 ‘실제, 지식, 기능, 맥락’으로 변화하였고, 문학의 경우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으로 나누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자와 근거 있는 작품해석을 교육내용 삼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8학년 성취기준에는 ‘(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가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4차	- 문학 장르에 대한 지식
5차	- 문학과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6차	- 문학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
7차	- 문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 -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
2007 개정	- 주체적인 독자 - 근거 있는 작품 해석

(2) 차수 별 교과서 활동 분석¹⁶⁾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문학 영역에서 어떠한 교육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차수 별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나기>가 수록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4차 교과서

4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4차 교과서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 ‘4. 소설’이라는 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전체 목차를 살펴보면 문학교육에 치중¹⁷⁾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4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을 3개 영역으로 나누며 문학 영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4차 교과서부터는 전체 대단원 도입부에 단원명과 함께 단원의 목표, 단원의 길잡이가 제시¹⁸⁾되고, 전개부에는 소단원 제재와 공부할 문제가, 정리부에는 문법과 작문이라는 명칭으로 대단원 학습을 마무리 한다¹⁹⁾.

대단원의 목표는 문학 중 소설의 지식을 아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시한 목표는 ‘1. 소설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와 ‘2. 소설의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자.’로 소설의 배경과 인물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고 있다. 더 자세히 풀어낸 단원의 길잡이는 아래와 같다.

16)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이지은의 글(<<소나기>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를 참조하였다.

17) 4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4차 교과서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목차는 1. 전기 2. 수필 3. 설명문 4. 소설 5. 논설문과 연설문 6. 희곡 7. 시 8. 기행문 9. 일기와 편지 10. 국문학이다. 10개의 단원 중 문학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4개 단원이다.

18) ‘단원의 길잡이’라 기재하였으나 4차 교과서에는 단원 소개에 대한 제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원의 길잡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5차 교과서부터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습활동’ 또한 5차 교과서부터 사용되었다.

19) 박창흠, <국어교과서 읽기 영역 “단원 활동” 변화 양상 연구 : 제1~7차 교육과정기의 중1 국어교과서 “읽기 영역” 소단원을 대상으로>, 《독서연구》 제30권, 한국독서학회, 2013, p.438.

[소설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이 된다. 소설에서, 배경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 소설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소설은 흔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과 ‘어떻게’는 ‘누가’를 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어보면, 인물들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인물들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직접 말로 해설하기도 하고,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소나기>가 이 단원에 적절한지를 판단해보자면, <소나기>에서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고 소년과 소녀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한다. 따라서 단원의 목표에 맞는 제재 선정이라 볼 수 있다.

<소나기>는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전문이 나와 있으며, 소단원의 전문이 끝나면 ‘공부할 문제’가 제시된다. 세부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4차 교과서 학습활동

공부할 문제
1. 분위기를 살려 이 소설(소나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자. (1) 이 소설의 줄거리를 말해 보자. (2) 이 소설 속의 소녀와 소년의 성격을 말해 보자. (3)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
2. 다음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이 소설에서 소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말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2) 이 소설에서 시골 정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3) 이 소설에 자주 나오는 ‘바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4)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5) 이 소설에 쓰인 문장의 특성을 알아보자.
3. 사전에서 ‘소나기’의 뜻을 찾아보고,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왜 ‘소나기’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자.
4. 소설의 감동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서로 발표해 보자.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曾 孫 農

먼저 1번 활동은 단원의 길잡이와 연계하여 볼 때, 인물의 성격과 공간적 배경을 묻는 질문이다. 2번은 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찾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2번을 먼저 활동한 후 1번의 활동을 진행하거나 1번의 답이 왜 나왔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2번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3번 활동은 소설의 제목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인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사전을 활용하게 제한하였다. 4번 활동은 소설의 감동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4차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목표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가 있어 이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3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였다고 하였는데, 4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소설의 감동을 나의 체험으로 끌어 와 발표하며 서로 나누어 보는 활동은 문학적 감동이 좀 더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번 활동은 학습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초한자의 습득을 위해 나온 활동으로 보인다. 〈소나기〉에 나온 한자들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장르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소나기〉의 단원의 목표와 단원의 길잡이, 그리고 공부할 문제들

분석해본 결과 장르학습이 잘 구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5차 교과서

5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5차 교과서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 '6. 소설과 인물'이라는 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2차부터 4차 교과서에는 〈소나기〉가 3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5차 교과서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옮겨졌다. 이는 학생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보인다. 〈소나기〉 원문에서 구체적인 소년과 소녀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남몰래 오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를 보면 소녀는 오학년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더욱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 이는 또한 5차 교육과정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경험과 결부시키며 창의적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하여 교육하도록 밝히고 있다. 이에 경험과 결부시키기에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5차 교과서에도 전체 대단원 도입에 단원의 길잡이, 전개에 제재와 학습활동, 정리부에는 단원의 마무리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의 구성은 ‘도입-전개-정리’의 틀²⁰⁾을 갖는데 이는 ‘읽기 전-중-후’의 읽기 과정과 유사하다.

5차 교육과정은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안에도 문학 지식에 대한 학습은 존재하나, 학문과 지식 습득 위주의 4차 교육과정보다 그 양과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20) 대개 도입부는 학습의 시작 부분으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부분이다. 전개부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제시된다.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소단원에 해당한다. 각 소단원 별로 글 제재를 중심으로 읽기 전-중-후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정리부는 학습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 우리는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의 이름은 잊을 때가 있어도 재미있게 읽은 작품 속에서 만났던 인물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인물들은 실제로 사귀었던 친구처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 …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은 상상의 인물이면서, 실제의 인물 못지 않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 된다. …]

소설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물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는지 보다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쉬운 예시를 제시해준다. 여기서 추출해볼 수 있는 단원의 목표는 ‘소설의 인물에 대해 안다.’ 정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기〉는 6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전문이 나와 있으며, 소단원의 전문이 끝나면 ‘학습활동’이 제시된다. 학습활동의 세부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3) 6차 교과서

6차 교육과정의 반영된 6차 교과서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 '5. 소설의 인물'이라는 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학습목표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원의 길잡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소설 속에서 많은 인물과 만나게 된다. ... 이와 같이, 여러 인물들이 활동하며 사건을 벌여 나가는 이야기를 상상하여 꾸며낸 것이 소설이다. 한 마디로 말해 소설은 인물들의 이야기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 주변의 인물과 닮은 점이 많다. ... 작가는 꾸며 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들이 예상로 알고 지나치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물음을 던지도록 해 주기도 한다. 소설의 인물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과, 이야기의 진행을 도와주는 주변 인물이 있다. ... 소설의 등장인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이처럼, 소설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대결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소설은 있었던 일, 있는 일, 있음직한 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이야기로서, 참되고 진실된 삶의 세계를 전달한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인물과 맞대어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폭넓고 풍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추출해 낸 학습목표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살펴보고, 주위와 비교해보며 생각과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기〉는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교과서 64-79쪽)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전문이 나와 있으며 단어풀이는 주석으로 2개,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소설의 첫 부분(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소년은 조약들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에 제시된 삽화는 허수아비 삽화인데, 장면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삽화이지만 가을의 분위기를 예측하게 해주는 삽화라고 볼 수 있겠다.

소단원의 전문이 끝나면 ‘학습활동’이 제시된다. 세부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 6차 교과서 학습활동

질문 및 내용
<p>1. ‘소나기’를 읽고, 소설의 인물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구별하여 보자.</p> <p>(2) 소년과 소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각각 두 가지씩 고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자.</p>
<p>2. ‘소나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이 작품의 즐거리를 말해 보자.</p> <p>(2) 이 작품의 배경을 알아보자.</p> <p>(3) 소년과 소녀의 외모가 대조적으로 표현된 곳을 찾아보자.</p> <p>(4) 소년이 소녀보다 성숙하게 행동하는 장면을 찾아보자.</p> <p>(5)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보자.</p>
<p>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p> <p>(1) 소년의 유언 없이 소설이 끝났다면, 감동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p>(2) 소녀가 죽지 않고 이사 가게 되었다면, 이사 가는 날 소년과 소녀가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p> <p>(3) 이 소설의 다음 부분을 이어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좋을까?</p>

먼저 1번 활동은 단원의 길잡이와 연계하여 볼 때, 소설의 인물 중 주요인물과 주변인물을 구별하는 활동,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을 고르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는 단원에서 학습할 목표와 부합되는 활동이다. 2번 활동은 작품의 진

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줄거리, 배경, 주제 등을 찾아내어 작품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 된다. 3번 활동은 단원의 학습 목표와 크게 연관은 없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

대단원 학습이 종료되면 ‘단원의 마무리’가 제시된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인물’에 관한 물음들이 제시가 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4차와 5차 교육과정에 이어 인물에 대한 학습을 이어 나갔다. 다양한 인물의 유형과 역할 등을 소개하였으며 학습활동에서도 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능동적인 학습자의 유도도 5차 교육과정에 이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7차 교과서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7차 교과서에는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 ‘2.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4차부터 6차 교과서에서는 〈소나기〉를 ‘소설’과 ‘인물’의 학습에서 주로 다룬 것에 비해 7차 교과서에서는 문학의 다양한 장르와 함께 수록되었다. 이는 〈소나기〉가 인물의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도 교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습목표와 ‘단원의 길잡이’가 모두 나와 있는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와 ‘2.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이다. 단원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 단원의 길잡이에 서는 문학 언어와 문학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하여 공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언어를 갖고 담아서 우리에게 아름답

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이렇게 볼 때,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되, 일상 언어를 좀더 세련되게 다듬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학의 아름다움은 독자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주고 문학적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요컨대, 문학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이란, 독자가 감동을 느끼고,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대단원은 자칫 문학 이론에 대한 지식적 접근으로 흐르기 쉽다. 이렇게 되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학 언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²¹⁾. 또한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각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환경 아래에서 제약을 설정해 문학의 아름다움은 독자가 감동을 느끼고,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제약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로드맵이며, 제약 안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기〉는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교과서 48-65쪽)에 수록되어 있다. 7차 교과서부터 읽기 전-중-후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읽기 전에’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읽기 전 활동인 ‘읽기 전에’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삽화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질문과 학습 안내를 제시하였다. 제목과 관련되어 지는 ‘소나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게 하였다. 또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작품을 읽어보라는 안내로 학습목표인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제시하여 준다. 이 소단원을 학습하면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여 학생들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소나기〉의 전문과 삽화, 낱말 풀이, 그리고 날개 부분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삽화는 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 같은 풍경이 보이고, 낱말 풀이는 총 12개이다. 날개 부분의 질문은 본문을 읽는 중에

2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 국어·생활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93.

인물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날개질문의 내용은 학습목표인 문학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것에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인물의 심정과 소재들의 역할 등을 찾아내는 질문들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질문들이라 생각한다.

읽기 후 활동인 ‘학습활동’은 ‘내용-목표-적용’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용학습’은 본문 내용에 대한 학습활동으로 사건에 대한 인물의 감정을 알아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목표학습’은 학습목표와 관련된 부분으로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생각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적용학습’은 소설 속에 인물이 되어 편지글을 써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한 질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7차 교과서 학습활동

학습 활동	질문 및 내용		
내용	이 소설의 중요한 사건을 찾아보고, 그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써 보자.		
	사건	인물의 감정	
		소년	소녀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남.	- 당황스러움 -	- 호기심이 생김 -
		-	-
	소녀가 다치자 소년이 치료해 줌.	- 안타까움 -	-
		-	-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말을 들음	-	-
	-	-	
목표	‘소나기’를 읽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		

	자.
	1. ‘소나기’라는 단어가 소설 제목으로 쓰였을 때와 일기 예보에서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 소설 제목으로 쓰였을 때 : - 일기 예보에서 쓰였을 때 :
	2.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적어보자. 그리고 문학적 아름다움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적용	소나기를 맞고 돌아온 뒤부터 앓게 된 소녀는 소년을 만날 수 없었다. 그 동안 소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고, 소녀의 처지에서 소년에게 편지를 써 보자. _____에게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가

내용학습인 1번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한 사건의 과정은 5개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 이 활동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사건을 찾는 데에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상기시킨다면 수월하게 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목표학습은 작품을 읽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는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목표학습 1번은 ‘읽기 전에’ 수행했던 활동과 연계하여 기존의 ‘소나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데, 작품을 읽고 난 후의 변화한 차이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학습의 1번은 ‘소나기’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활동은 대단원 학습목표 2번인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에서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목표학습 2번은 학습목표와 아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문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학생들이 생각해내기에는 추상적이다.

적용학습은 ‘읽기 전에’에 나온 안내와 연계되는 활동으로,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소단원들의 학습이 모두 끝나면 ‘보충·심화’의 학습으로 들어간다. 이 학습에서는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재와 연결 짓는다. 그 중 4번은 ‘수필을 읽고, 소설 ‘소나기’와 비교해 보자.’라는 문제를 제시하며 두 작품의 인물, 배경, 주된 사건, 결말,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써내려가게 하였다. 제시된 수필은 〈소나기〉와 배경, 사건, 분위기가 비슷하여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의 답을 쉽게 찾아내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7차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글을 읽는 과정을 교과서 내에 도입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훨씬 구조가 잡힌 상태의 교과서가 완성되었고, 또한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5)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1종의 국정 교과서에서 23종의 검정 교과서로 바뀌었²²⁾으며, 그 중 〈소나기〉가 수록된 교과서는 총 8종의 교과서이다.

〈소나기〉는 7학년인 중학교 1학년과 8학년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소나기〉를 수록한 교과서는 학기에 관계없이 모두 ‘(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라는 하나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록하였다. 중학교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로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를 바탕으로 수록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교학사, 대교(박경신 외), 디딤돌, 박영사, 천재교육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대교(왕문용 외), 미래엔, 좋은책신사고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성취기준을 토대로 〈소나기〉를 교육할 때 다뤄야 할

22) 최지현,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 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새국어교육》 8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p.293.

내용을 뽑아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성취기준	교수·학습 내용
7-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교과서 : 교학사, 대교, 디딤돌, 박영사, 천재교육)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이해하기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파악하기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8-문학-(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교과서 : 대교, 미래엔, 좋은책신사고)	○작품에 표현된 형식적 구조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작품에 표현된 내용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 인식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체계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교수·학습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중학교 1학년에서는 지식 측면에서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에서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보는 수용과 생산 측면이 들어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작품의 형식적 구조와 내용의 아름다움을 파악하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식하는 수용과 생산 측면의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다. 이들의 교수·학습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서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의 구성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검정 교과서로 바뀌게 되어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들은 학습 목표와 내용의 구체화에서 교육과정의 규정대로 활동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등의 확실성을 드러내 보였다. 교과서는 대단원과 소단원, 도입학습, 목표확인학습, 심화학습을 갖추었다. 교과서들이 이러한 체제를 취한 것은 이 단원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학습활동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23) 최지현, 위의 글, p. 297-298.

따라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부터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현행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위해 두 개의 교과서를 분석할 것이다. 그렇게 선정된 교과서는 교학사(남미영 외)와 좋은책신사고(이승원)이다. 이 두 교과서를 선정하는 이유는 첫째, 두 개의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에서도 〈소나기〉를 수록하고 있다. 둘째, 교학사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7학년 ‘(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로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는 8학년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로 다른 성취기준을 선정해 교과서를 구현하였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에서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로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는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로 다른 성취기준을 선정해 교과서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학사 교과서와 좋은책신사고 교과서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1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뀔 때 어떠한 성취기준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른 학습활동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파악한다면 〈소나기〉의 교수·학습 방안을 탐구할 때 더 의미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학사(남미영 외) 국어 1-1

이 교과서는 〈소나기〉를 ‘I. 문학과와 만남’이라는 단원에 수록하였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1. 문학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한다.’와 ‘2. 문학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3.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독자가 된다.’로 총 3가지의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단원 열기’에서는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문학과 함께 자라왔다. 아주 어릴 적에 들던 자장노래를 비롯하여 전래 동화와 동요, 초등학교 때 읽은 동화들이 모두 문학이다. 이런 문학 작품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향기처럼 다가오는 것이 바로 문학의 분위기와 정서이다. … 작품이 지니는 분위기는 다양하다. … 문학 작품은 이처럼 다양한 분위기를 풍기므로 우리가 작품을 바르게 감상하려면, 먼저 그 작품이 지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는 작품 전체에서 향기처럼 풍겨 나온다. … 수필과 소설의 경우에는 글쓴이의 취향이나 사고방식이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배경, 사건, 문체 등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위기와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 그리고 소단원 (3)에서는 소설이 지닌 분위기와 정서를 한껏 누리 보자. 그러는 사이에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더 잘 이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원 열기’는 대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습목표 3번과 연관되는 내용은 첫 문단의 자장노래, 전래 동화, 동요에 관련된 내용뿐이다. 물론 이 내용도 학습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소나기>가 수록된 소단원에서 3번 학습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단원 열기’에서는 문학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끼는 것이 문학을 감상할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라 말하며 강조한다. 소설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대화, 배경, 사건, 문체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학습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나기>는 I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교과서 57-76쪽)에 수록되어 있다. 소단원의 ‘읽기 전’ 활동으로 ‘감상하기 전에’가 나와 있다. 비가 내리는 사진과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소나기>의 학습 이전에 사진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있다. 먼저 소리를 상상하게 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며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학습목표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제목에 대한 질문 또한 작품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 된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소나기>의 전문이 실려 있다. 또 삽화와 날개 부

분의 낱말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삽화는 〈소나기〉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낱말 풀이는 총 37개이다. 특이한 점은 낱말 풀이에 한자 풀이도 함께 들어간 것이다. 한자는 4차 교과서의 활동으로 제시된 적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낱말 부분에 직접 설명을 하였고 그 양이 더 많아졌다. 7차 교과서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7차 교과서에는 낱말 질문이 존재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낱말은 글을 읽어가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거나, 지시하며, 자료 제공을 하는 부분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낱말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²⁴⁾. 그렇기에 7차 교과서에서 존재했던 낱말 질문이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읽기 후’ 단계는 학습활동 부분으로 이 교과서에는 ‘이해와 확인-생각과 발견-감상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질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2007 개정 교학사 교과서 학습활동

학습 활동	질문 및 내용
이해와 확인	○ 이 소설에서 내가 느낀 분위기를 적어 보자.
	○ 시간이 흐를수록 소년과 소녀 사이에 추억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추억이 담긴 다음 낱말들을 보고, 관련된 사건을 써 보자. (1) 징검다리와 조약돌 : _____ (2) 도랑물과 스웨터 : _____ (3) 대추알과 호두알 : _____ (4) 꽃뭉음과 소나기 : _____
	○ 소녀가 진흙물이 든 분홍 스웨터를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 유언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짧게 써 보자.

24) 한효진, 〈학습자 주도 문학읽기교육을 위한 상위인지적 전략 방안 연구 : ‘낱말질문’과 ‘자기점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36.

생각과 발견	○ 다음 빈칸에 맞는 사건을 채우면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 빈칸을 채우고 소설의 정서를 말해 보자.					
	말 걸기	위해 주기	그리워하기	선물 주기	이야기 들어 주기	헤어짐
생각과 발견	○ “‘소나기’라는 제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를 써 보자. (1) 짧은 사랑 : _____ 때문에 (2) 눈물겨운 사랑 : _____ 때문에 (3) 깨끗한 사랑 : _____ 때문에 (4) 내가 발견한 의미는? 이유는 _____ 때문에					
	○ ‘소나기’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둠원과 생각을 나누어 보자.					
감상과 활용	○ 이 작품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 소설의 결말을 이어서 써 보자.					
	○ 내가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이라 생각하고, 소녀에게 내 감정을 고백하는 편지글을 써 보자.					

‘이해와 확인’에서는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낱말들을 보고 관련사건을 떠올리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관련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은 글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순서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각과 발견’에서도 줄거리를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활동에서는 사건이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사건 안에서의 정서를 말해보게 한다. ‘이해와 확인’이 작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학습이고, ‘생각과 발견’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이라고 할 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을 묶어 ‘이해와

확인'의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소재와 정서는 '생각과 발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세 가지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와 확인' 부분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과 발견'의 두 번째 문제인 제목의 의미를 말해보는 활동은 '감상하기 전에'의 질문과 연계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감상과 활용'에서는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보기도 하고, 작중 인물이 되어보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소설의 결말을 이어서 써보는 활동에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학습목표와 연관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의 대화, 배경, 사건, 문체를 확인하여 문학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학습활동에서 제시된 것에서는 사건에 치중되어 문학의 분위기와 정서를 학생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가 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학생들이 기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활동의 대부분이 답을 서술해야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고 학습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2)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외) 국어 2-1

이 교과서는 〈소나기〉를 '1. 울림이 있는 문학'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에 수록하였다. 단원의 학습목표는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며 감상한다.'와 '2. 문학 작품이 지닌 가치를 인식한다.'로 제시하였다. 대단원의 개관과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 단원에서 무엇을 학습할지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읽은 문학 작품들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함으로써 문학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해 보자. ...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의 형식이나 언어 표현에 감탄하기도 하고, 일

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를 체험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곧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이자, 작품에 표현된 세계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단원에서는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해 보고, 이를 통해 문학 작품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보자.]

학생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관한 감상들(시의 배경, 운율, 시의 표현, 소설의 감상, 소설의 구성)을 예시로 제시해준 후 정의를 내려 주었다. 즉 문학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은 작품의 형식과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며, 가치는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를 체험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7차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 중 일부이며, 더불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문학을 깊이 있게 감상·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정리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나기〉는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교과서 24-45쪽)에 수록되어 있다. 소단원의 ‘읽기 전’ 활동으로 ‘활동 전에’가 나와 있다. 우산을 쓴 학생의 삽화를 중심으로 비의 종류에 따라 마인드맵을 펼치며 질문을 제시한다. 비를 가르치는 여러 명칭에 따라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경험과 느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읽기 중’ 활동은 〈소나기〉의 전문이 실려 있다. 본문 직전에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어떠한 것을 주목하며 글을 읽어보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소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글을 읽어보자.’라고 하였는데,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단원 개관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학생들이 소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설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제시된 전문에는 삽화가 삽입되었고, 날개 부분에는 낱말풀이와 질문을 제시하였다. 낱말풀이는 총 14개이다.

앞서 단원의 개관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은 작품의 형식과 언어 표현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함께 제시된 예시의 글은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읽고 학생들이 감상한 내용이다. 그 감상한 내용은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에라이, 이 놈아!” 하는 데서 아버지의 슬픔을 느꼈어.’, ‘팔이 불편한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마지막 부분에서 구성의 묘미를 느꼈어.’였다. 이 학생들은 작품의 한 구절에서 느낀 감상과, 그 구성에 대해 감상하고 있다. 이는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학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소나기〉의 날개 질문 중 이와 비슷한 질문은 ‘이 소설의 간결한 문체는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말해 보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날씨가 드러난 두 문장을 찾아보자.’,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로 골라볼 수 있다. 작품에서 나타난 언어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읽기 후’ 활동은 ‘학습활동’으로 7차 교과서에서 ‘내용-목표-적용’으로 나눈 것과 달리 번호로 매겨져 있다. 이를 ‘내용-목표-적용’을 기준삼아 임의적으로 나누어 세부 질문 내용을 분석해보겠다.

<표 8> 2007 개정 좋은책신사고 교과서 학습활동

학습 활동	질문 및 내용
내용	1. 다음 그림을 중심으로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각 장면에서의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써 보자.

	<table border="1"> <tr> <td>(삽화)</td> <td>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td> </tr> <tr> <td>(삽화)</td> <td>소년 : 소녀 :</td> </tr> <tr> <td>(삽화)</td> <td>소년 : 소녀 :</td> </tr> <tr> <td>(삽화)</td> <td>소년 : 소녀 :</td> </tr> <tr> <td>(삽화)</td> <td>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td> </tr> </table>	(삽화)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
(삽화)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										
목표	2. 소설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다음 소재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써보자. (조약돌 삽화) -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소나기 삽화) - () (호두, 얼룩 수탉 삽화) - () (얼룩진 스웨터 삽화) - ()										
	3. 이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 써 보자. - (소나기를 맞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4.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5. 이 소설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간결한 문체가 인상적이야. 소년이 정겹다리에 앉아 있다가 소녀가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에서는 짧은 문장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 흥미로웠어.										
적용	6.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주인공 역할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선정하고 이유를 말해 보자.										

	(소년 삽화) - 선정한 배우 : - 그 이유 : (소녀 삽화) - 선정한 배우 : - 그 이유 :
--	--

‘내용-목표-적용’의 활동은 ‘글 이해-목표 도달-생활 적용’의 구성으로 보고, 이를 분류하였다. 먼저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제시된 삽화를 활용해 사건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목표’는 4개의 질문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들이다. 그 중 5번 문제는 학습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제시된 예시를 보면 학생이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 중 어떠한 표현이 좋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다소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나, 2-4번 문제와 연관 지어 소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적용’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인데,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사인 연예인을 제시한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이 교과서의 전체적인 학습활동을 분석해보았다.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 활동들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선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나기〉를 4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는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7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문학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소나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현행 교과서 수록 양상

지금까지 선행 교과서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의 수록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1) 교과서 수록 현황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총 14종으로 교학사(남미영 외), 두산동아 2종(이삼형 외, 전경원 외), 미래엔(윤여탁 외), 비상 3종(김태철 외, 이관규 외, 한철우 외), 신사고 2종(민현식 외, 우한용 외), 지학사(방민호 외), 창비(이도영 외), 천재 3종(김종철 외, 노미숙 외, 박영목 외)의 종류를 가진다. 먼저, 14종의 교과서 중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의 현황이다.

<표 9> 2011 개정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현황

	출판사	저자	교과서	학년
1	교학사	남미영 외	국어①	7
2	두산동아	이삼형 외	국어②	7
3	비상교과서	이관규 외	국어②	7
4	비상교육	한철우 외	국어②	7
5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국어②	7
6	천재교과서	김종철 외	국어②	7
7	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②	7

총 14종의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구체화 한 자료인데, 특히 김정 교과서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주체들이 달라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즉, 같은 교육과정임에도 교과서를 개발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교과서가 나온다는 것이다. 14종에 이르는 교과서들은 각 개발 주체 별로 교육적 가치와 신념이 달라서 각기 단원명과 실려 있는 제재들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 중 절반의 교과서에서 〈소나기〉를 수록하였다는 것은 주목해 볼 점이다.

〈소나기〉를 수록한 7종의 교과서의 공통점은 모두 7학년 교과서에 수록을 하였다는 점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남은 6종의 교과서는 모두 국어 ②에 〈소나기〉를 수록하였다. 개정된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현황을 토대로 각기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어떤 단원에 수록이 되었고, 어떤 학습목표를 가지고, 어떤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위에서 확인한 각 교과서의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는 단원과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0> 〈소나기〉 수록 교과서의 대단원과 대단원 학습목표

출판사 / 교과서		대단원명 / 대단원 학습목표	
1	교학사 국어①	대단원명	2. 문학의 아름다움
		대단원 학습목표	
2	두산동아 국어②	대단원명	2. 문학의 표현 방법
		대단원 학습목표	1.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 비유와 상징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비상교과서 국어②	대단원명	6. 차이와 공감
		대단원	1.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

		학습목표	다. 2.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4	비상교육 국어②	대단원명	3. 내 눈으로 본다
		대단원 학습목표	
5	좋은책신사고 국어②	대단원명	3. 문학을 보는 눈
		대단원 학습목표	1.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 2. 적절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을 평가한다.
6	천재교과서 국어②	대단원명	1. 갈등과 화해
		대단원 학습목표	1.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2. 토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	천재교육 국어②	대단원명	2. 문학의 수용
		대단원 학습목표	1.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

7종의 교과서 중 교학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천재교육 교과서까지 5종의 교과서는 문학 영역으로만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비상교과서, 천재교과서 교과서는 통합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비상교과서, 천재교과서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 영역과 문학 영역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다.

<표 11> <소나기> 수록 교과서의 단원 구성

단일 단원 구성	교학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천재교육
통합 단원 구성	비상교과서, 천재교과서

또,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교과서는 <소나기>가 소단원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더 읽어보기’의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다른 5종의 교과서는 모두 소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12>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부분

소단원	교학사, 두산동아,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더 읽어보기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각 교과서의 단원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해 설정이 된 것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어떠한 성취기준이 기반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면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이다. 성취기준 (1)에 <소나기>를 수록한 교과서는 교학사와 두산동아 교과서이다. 성취기준 (2)에 <소나기>를 수록한 교과서는 천재교과서 교과서이다. 성취기준 (8)에 <소나기>를 수록한 교과서는 나머지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천재교육 교과서이다.

<표 13> 성취기준 별 <소나기> 수록 교과서

성취기준 (1)	교학사, 두산동아
성취기준 (2)	천재교과서
성취기준 (8)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천재교육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는 실제,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실제로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활동, 지식은 실제에서 요구되는

형식적·본질적·명제적 지식을, 기능은 실재를 수행하기 위한 사고의 절차나 과정, 태도는 정의적인 요인을 말한다. 즉, 실제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함께 통합되어 교육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표 14>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체계

실제 ● 다양한 갈래의 문학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갈래 ● 문학 작품의 맥락	● 작품 이해와 해석 ● 작품 감상 ● 작품 비평과 소통 ● 작품 창작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 문학에 대한 흥미 ● 문학의 생활화

문학 영역의 경우 내용체계가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로 나누어진다. 다양한 갈래의 문학의 활동을 위해 형식적·본질적·명제적 지식을 알고, 작품을 이해·해석·감상·비평·창작하는 수용과 생산 활동을 하고, 문학의 중요성과 흥미,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성취기준을 토대로 <소나기> 를 교육할 때 다뤄야 할 내용을 뽑아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성취기준	교수·학습 내용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기 - 다양한 표현 방식의 효과 이해하기 -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 표현하기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갈등의 진행 파악하기 - 갈등의 해결과정 파악하기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고 평가하기 - 자신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태도 갖기
-----------------------------	--

지금까지 각 교과서가 각기 다른 성취기준을 토대로 <소나기>를 교과서에 수록한 것을 확인해 보았다. 정리해보자면, 2011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는 7종의 교과서에서 7학년을 대상으로 수록이 되었다. 그 중 <소나기>가 소단원으로 제시된 5종의 교과서는 성취기준(1)과 성취기준(8)을 대상으로 수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의 구성과 학습활동은 어떻게 고안되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과서 활동 분석

교과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앞서 말했듯이 교과서의 구성은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입-전개-정리’의 틀을 갖고 그 안의 세부 내용은 교과서 개발 주체에 따라 재량적으로 정해져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나기>의 교과서 수록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교과서만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더 읽어보기’에 수록이 되어 있었다. ‘더 읽어보기’는 소단원의 ‘읽기 후’ 활동으로 <소나기>가 완전하게 학습이 될 것이라 판단되지 않기에 이 두 교과서는 제외한다. <소나기>가 수록된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교학사 교과서와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를 분석하였기에 현행 교과서도 교학사 교과서와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를 분석해 비교해보도록 한다.

1) 교학사(남미영 외) 국어①

이 교과서는 〈소나기〉를 ‘2.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에 수록하였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단원을 여는 글’에서 ‘문학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감동을 전한다.’를 제목으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안내한다. 운율과 비유, 상징의 표현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를 추출해보자면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알고, 다양한 표현 방식의 효과를 느끼며 문학을 감상하고, 이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음’이 될 거라 본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파악하는 활동이었는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소나기〉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될 것이라 보인다.

〈소나기〉는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교과서 71-92쪽)에 수록되어 있다. 소단원의 ‘읽기 전’ 활동으로 ‘감상하기 전에’가 나와 있다. 비가 내리는 사진과 질문을 제시하였다. 소단원인 〈소나기〉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제재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이며, 본문에서는 소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한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소나기〉의 전문이 실려 있다. 또 삽화와 날개 부분의 낱말 풀이, 그리고 질문을 제시하였다. 삽화의 경우 〈소나기〉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낱말 풀이는 총 37개이다. 날개 부분의 질문은 본문을 읽는 중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질문들은 대체로 내용 파악에 대한 질문인데, 학습목표에 맞게 비유나 상징과 관련된 질문도 섞여있다. ‘-요’로 끝나는 질문과 ‘-까’로 끝나는 질문이 있는데, 두 질문의 내용 상 차이는 크게 없다. 몇 질문의 경우 낱말 풀이가 함께 겹쳐 있어 학생들이 답을 적을 공간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위의 질문들로 소설의 줄거리와 구성을 파악하여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읽기 후’ 단계는 학습활동 부분으로 이 교과서에서는 2007 개정 교과서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50px; height: 25px; margin-bottom: 10px;"></div> <p>[비유적 표현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p> <p>(2) 다음 문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가 길을 걸어간다. → _____ - 소나기가 내린다. → _____ <p>(3) 이 소설에서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을 더 찾아보자.</p> <p>2. ‘소나기’라는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학생사진1)소나기는 ‘슬픈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학생사진2)소나기가 상징하는 것은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생각해. (학생사진3)소나기의 상징적 의미는 ‘깨끗한 사랑’이라고 생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발견한 ‘소나기’의 상징 : - 그렇게 생각한 이유 : <p>[소나기의 특성, 소나기로 인해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게 된 점, 소나기로 인해 소녀의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되었다는 점 등을 떠올려 보고, 소나기의 상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p>
감상과 활용	<p>다음 제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p> <p style="padding-left: 20px;">무지개 / 날벼락 / 찢눈 / 안개</p> <p>(1) 우리 모둠이 정한 제목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 이유 : <p>[모둠원과 상의하여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제목을 골라 보세요.]</p> <p>(2) 다음 순서에 따라 모둠별로 이야기를 구성해 보자.</p> <p>등장인물 정하기 : _____</p> <p style="padding-left: 20px;">→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배경 정하기 : _____</p> <p style="padding-left: 20px;">→ 주요 사건 만들기 : _____</p> <p>[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에 필요한 세가지 요소예요.]</p>

<p>(3) ‘활동 (1), (2)’를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모둠이 정한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세요.]</p> <p>(4) 우리 모둠이 만든 이야기를 발표해 보자. 그리고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평가해 보자.</p>	
평가 기준	모둠명
-제목에 상징이 가장 잘 드러난 모둠은?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든 모둠은?	
-주요 사건이 가장 흥미로운 모둠은?	

‘이해와 확인’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주요 소재와 역할 연결시키기, 중심 내용 정리하기의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소설의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주어 제대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과 발견’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해와 확인’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먼저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대해 직접 느껴보고,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주어진다. 더불어 본문 내용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인 부분을 더 확인해보는 활동이 주어진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는 일상적 표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준다. 다음 문제는 상징 표현에 관한 것이다. 제목이 무엇을 상징하는 지 학생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문학의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알고 작품을 감상하고 또 표현해 볼 수 있다.

마지막 활동인 ‘감상과 활용’은 제목을 한 가지 선택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먼저 제목을 정하고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시간적·공간

적 배경, 주요 사건을 정한다. 그 다음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하여 평가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목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둠활동을 통하여 협업능력과 배려 등의 정의적 태도와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앞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각 활동 날개 부분에 안내 지침을 통해 교사의 지시 없이 학생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고, 교사의 지시가 있는 상태라도 안내 지침을 통해 틈을 얻어 학습할 수 있어 좋은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알고, 다양한 표현 방식의 효과를 느끼며 문학을 감상하고, 이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였다. 읽기 전-중-후의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읽기 후’ 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학습활동의 쪽수가 많아 학습할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부분보다 ‘이해와 확인’ 부분에서 삽화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한 페이지로 쪽수를 줄여 부담을 적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선행 교과서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같으므로 학습활동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좋은책신사고(민현식 외) 국어②

이 교과서는 〈소나기〉를 ‘3. 문학을 보는 눈’ 단원에 수록하였다. 단원의 학습목표는 ‘1.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와 ‘2. 적절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을 평가한다.’로 제시하였다. 대단원의 개관인 ‘단원 열기’에서는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고, ‘만화로 열기’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해를 돕는다. 주체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적절한 근

거는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이 단원을 학습한 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다.

이 단원은 시 2편과 소설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소설 〈소나기〉는 두 번째 소단원(교과서 123-142쪽)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원의 마무리 부분인 ‘쉽터’(교과서 164-165쪽)에는 ‘소나기 마을을 찾아가다’라는 주제로 소나기마을과 황순원 문학관을 소개한다. 소단원의 ‘읽기 전’ 활동으로는 ‘활동 전에’가 나와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에도 나왔었던 것과 같은 마인드맵을 제시하며 질문을 하고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질문은 한가지로 줄었다. 질문의 내용은 다양한 비를 경험해본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한 느낌을 말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느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읽기 중’ 활동은 〈소나기〉의 전문이 실려 있다. 본문 직전에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어떻게 글을 읽어보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해 보자.]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읽을 때,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삽화와 낱말풀이,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낱말풀이는 총 15개이다. 삽화는 서정적인 동화책에 쓰일 것 같은 삽화를 제시해 작품의 서정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질문은 대체로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날개의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용이할 뿐더러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읽기 후’ 단계에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의 학습활동들은 내용-목표-적용활동으로 구분이 되

어 있다. 내용활동은 본문의 내용에 관한 학습이 들어 있다. 목표엔 학습목표와 연관되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적용엔 본문 내용과 학습목표에 관련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활동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았는데, 이를 임의적으로 내용-목표-적용 학습으로 나누어보면 내용엔 1번 활동, 목표엔 2번과 3번 활동, 적용엔 4번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좋은책신사고 교과서 학습활동

학습 활동	질문 및 내용		
내용	1. 다음 그림을 중심으로 소설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5 920 544 1066">(삽화)</td> <td data-bbox="544 920 1326 1066">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td> </tr> </table>	(삽화)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
	(삽화)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가 버림. 소년 : 당황스러움 소녀 : 소년이 야속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5 1066 544 1207">(삽화)</td> <td data-bbox="544 1066 1326 1207">소년 : 소녀 :</td> </tr> </table>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5 1207 544 1348">(삽화)</td> <td data-bbox="544 1207 1326 1348">소년과 소녀가 수숫단 속에서 소나기를 피함. 소년 : 소녀 :</td> </tr> </table>	(삽화)	소년과 소녀가 수숫단 속에서 소나기를 피함.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과 소녀가 수숫단 속에서 소나기를 피함. 소년 : 소녀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5 1348 544 1489">(삽화)</td> <td data-bbox="544 1348 1326 1489">소년 : 소녀 :</td> </tr> </table>	(삽화)	소년 : 소녀 :	
(삽화)	소년 : 소녀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5 1489 544 1624">(삽화)</td> <td data-bbox="544 1489 1326 1624">소년이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td> </tr> </table>	(삽화)	소년이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	
(삽화)	소년이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유언을 들음. 소년 :		
목표	2. 이 소설의 내용을 떠올리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소재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써 보자. (조약돌 삽화) -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p>(호두 삽화) - ()</p> <p>(얼룩 수탉 삽화) - ()</p> <p>(분홍 스웨터 삽화) - ()</p> <p>(2) 다음 구절들의 공통적인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보자.</p> <table border="1" data-bbox="406 593 1316 705"> <tr> <td data-bbox="406 593 1029 705"> <p>-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나기를 맞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p> </td> <td data-bbox="1029 593 1316 705"> <p>공통적인 의미와 역할</p> </td> </tr> </table> <p>(3) 이 소설의 제목이 ‘소나기’인 이유를 근거를 들어 해석해 보자.</p> <p>3. 다음을 참고로 하여, 주제적인 관점에서 이 소설 속의 소년과 소녀의 사랑의 의미를 평가해 보자.</p> <table border="1" data-bbox="406 907 1316 1400"> <tr> <td data-bbox="406 907 1316 1265"> <p style="text-align: center;">요원의 해석과 평가</p> <p>나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짧지만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났을 때 소나기가 내린 것과 소년과 소녀의 만남에서 볼 수 있었던 시골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소녀를 등에 업고 도랑을 건넌 일,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에서 소녀를 기다리는 모습, 소녀에게 주기 위해 맨손으로 호두를 까는 모습 등에서 소년의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분홍 스웨터를 입혀서 물어 달라는 소녀의 유언에서 소년과 소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p> </td> <td data-bbox="406 1265 1316 1400">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해석과 평가</p> </td> </tr> </table>	<p>-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나기를 맞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p>	<p>공통적인 의미와 역할</p>	<p style="text-align: center;">요원의 해석과 평가</p> <p>나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짧지만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났을 때 소나기가 내린 것과 소년과 소녀의 만남에서 볼 수 있었던 시골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소녀를 등에 업고 도랑을 건넌 일,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에서 소녀를 기다리는 모습, 소녀에게 주기 위해 맨손으로 호두를 까는 모습 등에서 소년의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분홍 스웨터를 입혀서 물어 달라는 소녀의 유언에서 소년과 소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해석과 평가</p>
<p>-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나기를 맞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p>	<p>공통적인 의미와 역할</p>				
<p style="text-align: center;">요원의 해석과 평가</p> <p>나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짧지만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났을 때 소나기가 내린 것과 소년과 소녀의 만남에서 볼 수 있었던 시골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소녀를 등에 업고 도랑을 건넌 일,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에서 소녀를 기다리는 모습, 소녀에게 주기 위해 맨손으로 호두를 까는 모습 등에서 소년의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분홍 스웨터를 입혀서 물어 달라는 소녀의 유언에서 소년과 소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해석과 평가</p>				
<p>적용</p>	<p>4. 이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주인공 역할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선정하고 이유를 말해 보자.</p> <p>(소년 삽화)</p> <p>- 선정한 배우 :</p> <p>- 그 이유 :</p> <p>(소녀 삽화)</p> <p>- 선정한 배우 :</p> <p>- 그 이유 :</p>				

‘내용’에서는 본문을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제시된 삽화를 활용하여 소설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삽화를 통해 본문 내용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목표’의 2번 문항에서는 소재가 의미하는 바, 구절의 공통된 의미, 제목의 의미를 각자 해석해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3번 문항에서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랑’의 의미를 평가해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3번 문항의 예시를 보면 각 소재의 의미, 제목의 의미 등을 사용하여 근거를 들어 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앞선 2번 문항과 3번 문항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활동이라 본다. 또한, ‘읽기 중’ 활동에서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안내지침도 활용이 되어 있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을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 된다.

‘적용’에는 앞선 3번 문항에 비해 가볍게 근거를 들어 주체적인 관점을 확립하는 문항이 나와 있다. 이 문항을 ‘읽기 전’ 활동에서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 소재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을 다시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배우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각자 선정의 이유가 다르고, 그 이유를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하는 활동이었으므로 가볍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더러 활동이 집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교과서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여 담고 있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다름에도 비슷한 내용의 활동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취기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목표-적용의 활동들이 학습목표에 맞게 밀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근거를 들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3. 수록 양상의 논의점

지금까지 선행 교과서와 현행 교과서의 수록 양상을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소나기〉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로 교수·학습이 되도록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또 학습목표는 문학 장르에 대한 지식부터 문학에 대한 지식, 주제적인 독자까지 다양하게 변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 개정 교과서 이전의 교과서들은 모두 정서나 소재 등의 문학 지식의 학습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문학 지식에 대한 학습으로 〈소나기〉가 그 작품 자체로 문학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되는 같은 교육내용이 현재의 학습자들에게 공감대가 적고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며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계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2011 개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성취기준 하에 〈소나기〉가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나기〉가 문학 이론의 학습에서 벗어나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성취기준이 반영된 교과서 중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이 교과서가 성취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학습자의 더욱 활발하고 능동적인 학습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목표학습과 적용학습은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학습의 경우 제시된 제재, 즉 〈소나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목표학습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며, 적용학습은 목표달성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학습자가 목표를 내면화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목표학습의 경우, 소재와 제목의 의미

를 파악하는 활동과 주제에 대한 의미를 평가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달성해야 할 성취기준이 주체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평가하는 내용임에는 부합하나 그것을 나누어 보는 활동이 부족하다. 또 적용학습의 경우 영화를 제작한다고 가정하고 배우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활동이 주어졌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도 같은 활동이 주어졌는데 이 활동은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상상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학생들이 선망하는 연예인을 선정해 흥미를 끌 수는 있으나 배우를 선정하는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점과 의견의 공유, 흥미 위주의 활동이었던 학습 내용을 보완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Ⅲ. 〈소나기〉의 교수·학습 방안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소나기〉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 된 내용은 주체적인 독자와 근거 있는 작품해석이 교육내용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교육내용은 〈소나기〉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적용되어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소나기〉의 교육방향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소나기〉의 교수·학습 양상은 문학 장르에 대한 지식,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었다. 물론 2011 개정 교과서에서도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성취기준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단원에 〈소나기〉가 수록된 현행 교과서 중 2종의 교과서가 독자와 작품 해석과 평가에 학습목표를 두는 것은 〈소나기〉가 이러한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문학영역 성취기준 (8)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방안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앞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살펴본 듯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할 때에도 학습활동의 질문들은 소재, 구절,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상징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미 파악에 대한 학습활동도 더불어 제시하겠다.

또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 학습목표와 학생, 그리고 교사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수·학습 상황을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교수·학습 상황

(1) 성취기준

<표 18> 교수·학습 관련 성취기준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문학영역
영역 성취 기준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내용 성취 기준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
독자가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에 대한 독자의 해석과 평가 활동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적절한 근거를 들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주체적인 평가가 분명하게 드러난 비평문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평소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이별에 관한 작품을 읽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별 경험을 떠올려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나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 배경지식, 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평가한다.

내용체계의 수용과 생산 측면에서 성취기준을 분석해보겠다.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구축된 하나의 구조물일 뿐,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를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독자의 읽기는 텍스트의 여백을 채우는 작업으로서, 문학현상을 완성하는 주체는 수용자, 즉 독자라고 볼 수 있다²⁵⁾. 텍스트를 읽을 때,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 해석과 평

25)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이론편》, 역락, 2014, p.105.

가의 방향이나 태도를 관점이라고 한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체계의 태도 측면에서 성취기준을 분석해보겠다. 주체적인 문학 활동이 가능해야 '문학의 향유'가 가능해지고 또한 문학을 향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체적인 문학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²⁶⁾.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해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적극적인 독자가 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게 해주어 문학 작품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자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의 성장을 강조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은 중학교 1~3학년군 문학영역의 성취기준 중 하나이다. 이 성취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군 문학영역의 성취기준과 선택교육과정 문학과도 연계가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표 19> 연계 성취기준

초등학교 5~6학년군
(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이 무엇이며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는 경험은 문학의 생활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저마다 좋아하는 작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표현하는 소통의 체험을 통해 좋은 문학 작품을 찾아 공유하는 태도와 문화를 지니도록 한다.
(5)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교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이유를 짐작해 보거나 제시된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말해봄으로써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체험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26) 정재찬 외, 위의 책, p.207.

중학교 1~3학년군
(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p>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작품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같은 작품에 대한 여러 해석을 비교하고, 어떤 근거를 들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작품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 편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되,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p>
선택교육과정 문학
(6)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p>작품을 수용하는 것은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체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주제 뿐 아니라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수용해야 한다. 작품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수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개성 있는 안목을 갖게 되고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른다.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p>

위의 성취기준들은 모두 문학의 비평이론 중 수용이론에 집목하게 된다.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문학이란, 독자에게 미적 쾌감, 교훈, 감동 등의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수용이론의 교육은 결국 텍스트를 학습자가 능동적인 읽기를 통해 작품으로 승격시켜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즉 학습자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능동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문학 해석의 주체성을 획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²⁷⁾. 문학 작품을 이해하거나 생산하는 활동 등을 즐거우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문학 작품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해석해보고 문학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고등학교

27) 정재찬 외, 위의 책, p.104-107.

교 단계에서 심화된 형태로 나아간다면 문학 향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학습 주체 요인

1) 교수자

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켜 교양 있는 사회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학습자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 뿐더러 그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어에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이 있으며 그 중 문학을 수업하게 되는 교사는 문학 작품의 일차적인 수용자이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교사 자신이 문학 독자의 한 사람으로 문학적 소양을 지녀야할 뿐 아니라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를 해석과 가치 판단의 주체적 경험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문학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과 수업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우선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좋은 문학 작품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이 문학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학생들의 문학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교수자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분석과 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습자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현재도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입시의 추세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기존의 입시전형은 오로지 성적과 수상기록 등으로만 평가를 하였기에 적성에 맞는 진로임에도 성적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의 선발 과정을 거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를 고려하여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른 시기부터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연히 교육의 본질이 입시가 되어서는 안 되나 입시를 둘째로 두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그 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중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학생이 방황을 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²⁸⁾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8단계 중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 말한다. 유아기 이후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켜 온 아동은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그 노력에는 직업, 성역할, 삶의 철학 등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포함된다.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도 중학교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특성, 능력 등을 탐색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 보는 진로탐색 단계에 해당한다.

중학교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진로 지도는 이러한 중학교 단계의 청소년들의 특

28) 김한중, 《교수학습과 교육심리 84》, 키메이커, 2015, p.298.

수성을 고려하여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²⁹⁾.

본고의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성취기준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학습하도록 설정하였다.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을 한다는 것이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져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이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면 학습자들이 평상시에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화와 소통 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는 활동은 해석의 정당성을 스스로 모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치와 주제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자연스럽게 풍부한 창의적 경험을 자극받을 수 있게 된다³⁰⁾.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으며, 근거 있는 해석의 과정에서 오독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었고 왜 그렇게 해석하고 감상하였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이해와 감상³¹⁾으로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자신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성장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29) 류보라·김소현, 〈중학생의 독서와 진로 탐색의 관계〉, 《독서연구》 제33권, 한국독서학회, 2014, p.356.

30) 우한용 외, 《국어과 창의·인성교육》, 사회평론, 2013, p.270.

31) 최미숙 외, 위의 책, p.334-335.

2. 교수·학습 방안

(1) 교수·학습 모형

〈소나기〉를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라는 성취기준으로 교수·학습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형은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³²⁾이다.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 방법의 핵심은 모형의 이름과 같이 ‘대화’이다. ‘대화’란 다양한 목소리들 간의 대화를 통해 목소리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좀 더 타당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일반적인 절차와 주요 학습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0〉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와 예

절차	주요 학습활동의 예
문학에 관한 필요한 지식 이해하기	- 작품과 관련 있는 문학적 지식 이해하기 - 대화 중심 읽기 방식에 대한 안내
문학 작품 읽기	- 작품의 분위기나 어조 파악하기 - 작품의 의미 예측하기
<대화1> 독자 개인의 내적대화	- 문학 텍스트에 근거하여 작품 이해에 필요한 질문을 스스로 생성하고 답하기 - 상호 경쟁적인 읽기 중 스스로 가장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읽기(지배적 읽기)를 선택하기 - 독서 스토리 작성하기
<대화2> 독자와 독자들 간의 대화	- 타당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텍스트의 해석과 다른 독자의 근거를 비교하며 대화 나누기 - 타당한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 찾아보기 - 애매한 내용을 명료화하고 각 근거의 설득력을 비교하여 타당한 해석 내용 판단하기
<대화3>	- 그동안의 대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관

32)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최지현 외의 책(《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과 정재찬 외의 책(위의 책)을 참조하였다.

교사(전문가)와 독자의 대화	점 제시하기(교사) - ‘대화2’에서 오독이 발생한 경우 수정하기 - 여러 관점 간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좀 더 근거 있는 해석의 가능성 설정하기
작품의 의미 정리하기	-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의 의미 정리하기 - 모작, 개작, 모방 텍스트 창작하기 - 독서 스토리 완성하기

절차에서 나타나는 대화는 세 개의 차원의 대화로 구분된다. 대화1은 내적 대화, 대화2는 횡적대화, 대화3은 종적대화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화1은 작품을 읽는 중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가진 다양한 관점과 견주어 고민해보는 과정이다. 대화2는 대화1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자 간, 즉 학생 간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한다. 대화1에서 자신이 생각한 후 타당하다고 결정한 관점을 타인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는 등 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대화3은 전문가인 교사가 개입하여 대화1과 대화2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오독이 된 부분, 해결을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져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지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때 교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의도를 가진 질문을 추가적으로 던짐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사유를 가동시켜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2011 개정 좋은책신사고 교과서에서는 대화의 과정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세우기 위해선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2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관점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증명해내고, 대화3의 과정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한다면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소나기〉 교수·학습 계획은 총 4차시로 구성하였다. 상세한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시

차시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읽기 및 학습활동(내용 학습) ▶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의 주요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2. 글을 읽고 사건에 따른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소나기〉 전문은 수업시간 이전에 읽어 온다. - 퀴즈 : 사건의 진행방향과 등장인물, 소재에 초점을 둔 퀴즈를 푼다. - 확인 : 교사와 함께 교과서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

1차시에서는 〈소나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최근 교육 현실에서 등장한 거꾸로 수업은 수업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은 기존의 수업 방식을 뒤집은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교실 안에서 일어나던 수업이 교실 밖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보고 학교에 가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수업에서 모티브를 얻어 학생들이 집에서 〈소나기〉를 읽어 오도록 계획한다. 교과서에 실린 〈소나기〉의 양은 보통 15쪽 정도로 꼼꼼히 읽어나간다면 최소 2차시가 소요되기에 1차시 안에 읽어 나가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작품 전문을 미리 읽어나갈 수 있는데, 교사가 2차시 정도의 수업으로 작품 읽기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의 집중력과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소나기 전

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과제를 예고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동영상을 본 후 작품을 읽어온다.

해당 차시에서는 교사가 〈소나기〉에 관련된 퀴즈 자료를 나누어준다. 각자 퀴즈를 풀고 답은 교사와 함께 본문을 찾아 읽으며 맞춘다. 여기서 교사는 다음 차시를 대비하여 각 장면과 소재, 제목 등에 관한 상징적 의미 등을 함께 나누어보는 간략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 활동은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대화1과 대화3의 과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문 관련 내용 수업이 마치면 〈소나기〉를 재구성 한 3분간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다음 차시의 학습 예고를 진행한다. 모둠원을 구성하여 다음 차시에 자리를 잡고, 각자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오도록 과제를 준다.

2) 2차시

차시	내용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영상 제작 계획서 작성) ▶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소나기〉를 재구성하여 3분간의 짧은 영상을 제작한다.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 6명 당 1개 조가 되어 모둠을 구성한다. 2. 자신이 감독, 작가, 스태프(소품, 의상 등)라고 가정한다. 3. 〈소나기〉에서 짧은 영상으로 재구성 할 장면, 소재를 선택한다. 4. 왜 선택한 것을 재구성할 것인지 타당한 이유를 적는다. 5. 모둠별로 영상 제작에 관한 토의와 역할 분담을 한다.

2차시에서는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현재 학습자

들은 다양한 매체의 사용이 쉽고 빠르다. 영상 제작은 학생들의 매체 사용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듬원 각자가 자신의 꿈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된다. 영상은 그 목적에 따라 영화나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각 모듬에서 어떤 장면과 소재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꼭 〈소나기〉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소나기〉에 나온 마타리꽃 등의 들꽃들을 탐색해보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작품의 결말을 다르게 하여 영상을 제작해 볼 수도 있다. 〈소나기〉를 모티브로 삼은 다양한 영상들을 소개³³⁾하는 것도 학생들의 사고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구성하고, 영상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 음향 등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소나기〉를 재구성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왜 그 장면과 소재를 가져오고, 왜 바꿀 것인가, 재구성하려는 주제와 영상 유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모듬이 그 장면과 소재를 해석한 것과 이를 어떻게 재구성한다는 이유가 있을 때 학습 목표와 연계한 활동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사는 이 때 모듬 별로 토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순회 지도한다. 이 활동은 대화 중심 교수·학습모형의 대화²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상은 원테이크(one take) 기법으로 촬영함을 공지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찍어 편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원테이크 기법이란 카메라 한 대만으로 동선을 따라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촬영 시작 후 한 번도 카메라의 녹화를 정지하지 않는 방법인데, 한 차시 안에 영상을 제작해야 하므로 편집

33)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엽기적인 그녀》(곽재용 감독, 2001, 36:00-38:40.)와 《클래식》(곽재용 감독, 2003, 14:10-29:10, 55:55-59:00.)이 있다.

기술 같은 것은 섬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테이크 기법을 사용하도록 공지한다. 이 때, 원테이크 기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테이크 기법이 사용된 뮤직비디오나 영화 장면 등을 예시³⁴⁾로 들어 보여준다. 또한 원테이크 기법은 촬영 도중 실수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하므로 치밀하고 섬세한 대본 작성과 모듈 구성원 간의 많은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서 작성과 영상 제작을 차시예고로 하고 2차시 수업을 마친다.

3) 3차시

차시	내용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영상 제작) ▶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다양한 공간에서 영상을 제작한다.

3차시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한다. 촬영의 장소는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공원 등에서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도 안전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는 모듈원 전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현장에서 2차시와 3차시의 활동이 한 차시에 완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실제 교수자는 차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활동을 진행하여 의미 있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4) 뮤직비디오의 예시로는 <으르렁>(엑소, 조수현 감독, 2013.), <금요일에 만나요>(아이유, 홍수아 감독, 2013.) 등이 있다. 영화는 보통 롱테이크 기법(long take, 한 테이크를 길게 가는 기법)이 쓰였는데 그 예로는 《서편제》(임권택 감독, 1993, 44:23-49:30.), 《베테랑》(류승완 감독, 2015, 21:42-22:34.)등이 있다.

4) 4차시

차시	내용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영상 발표 및 평가) ▶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주체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평가할 수 있다.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듈별로 영상 제작의 취지와 영상을 발표한다. 2. 영상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제시한다.

4차시는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영상 제작 계획서에 있는 타당한 근거들을 발표하며 영상 제작 목적을 밝히며 영상을 발표하도록 한다. 영상을 보며 평가하는 학생들에게도 타당한 근거를 가진 평가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3) 차시별 교수·학습 자료

1) 1차시

<p>소나기³⁵⁾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세요. 틀리다면, 왜 틀린지 적어봅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녀는 수원에서 온 윤 초시네 증손녀이다. (X - 소녀는 서울에서 온 윤 초시네 증손녀이다. - 11쪽) 2. 소녀가 물속에서 주워서 소년에게 던진 조약돌은 흰색이다. (O - 흰색 조약돌을 주워 소년에게 “이 바보.” 하면서 던졌다. - 11, 12쪽) 3. 소녀가 조약돌을 던지자 소년은 소녀를 쫓아갔다. (X - 벌떡 일어서서 갈밭사잇길로 들어서는 소녀를 보았다. - 12쪽) 4. 소년과 소녀의 만남의 장소는 개울가이다. (O - 개울가는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의 장소이자 마지막 만남의 장소이다. - 11, 18쪽)

5. 소년은 소녀가 보이지 않자 허전한 마음에 조약들을 찾아 던지는 습관이 생겼다.
(X - 조약들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 12쪽)
6. 소년이 소녀를 피해 도망친 곳은 갈밭이다.
(X - 메밀밭이다. - 13쪽)
7. 소년과 소녀가 처음 대화하게 된 내용은 비단조개이다.
(O - 소녀가 무슨 조개인지 묻고 소년이 비단조개라 답했다. - 13쪽)
8. 소년과 소녀가 함께 처음 먹은 것은 참외이다.
(O -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에서 밀이 덜 든 무를 먹고 맵고 지리다며 팽개쳐 버렸다. - 14쪽)
9. 소녀가 좋아하는 색은 마타리꽃 색인 노란색이다.
(X - 도라지꽃 색인 보라색이다. - 15쪽)
10. 소녀의 무릎에 피가 나자 소년은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빨았다.
(O -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빨 후 송진을 문질러 발랐다. - 15, 16쪽)
11.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자꾸 드는 모양’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선크선크’이다.
(O -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크선크했다. - 16쪽)
12. 수숫단 속은 비가 세진 않았지만 어둡고 좁아 밖에 앉은 소년은 비를 맞아야 했다.
(O - 소년이 비를 맞자 소녀는 수숫단 속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 17쪽)
13. 소녀는 소년에게 옹은 검붉은 진흙물의 세탁비를 요구하였다.
(X - 소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한다. - 18쪽, 21쪽)
14. 소녀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X - 소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 - 19쪽)
15. 소년이 소녀에게 주고 싶어 떠난 것은 대추다.
(X - 소년이 소녀에게 주려고 한 것은 호두다. - 19쪽)
16. 소년은 소녀를 만나 예전보다 더욱 수줍음이 많아졌다.
(X - 소년은 소녀를 만나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17. 소녀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
(O -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 - 21쪽)
18. ‘잔망스럽다’는 ‘알뜰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라는 뜻이다.
(O -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 21쪽)

35) 답안의 쪽수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정전으로 설정한 책(황순원, 《학/잃어버린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8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거꾸로 수업의 일환으로 미리 〈소나기〉를 읽어 온 후 퀴즈를 풀어보는 내용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수업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소나기〉를 읽어왔는지 줄거리를 통한 내용 확인 후에 세밀한 부분의 내용을 찾아보는 학습 자료를 나누어준다. 가령 학습 자료 1번 문제는 ‘소녀는 수원에서 온 윤 초시네 증손녀이다.’인데 소녀는 ‘서울’에서 온 윤 초시네 증손녀로 틀린 진술이다. 너무나 집약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는 질문과 전체적인 질문을 함께 섞어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다 풀 후에는 교사와 쪽수를 찾아가며 답을 맞춰보도록 한다. 답을 맞춰가면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언급해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데 학습 자료 15번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15번 문제의 답은 ‘소년이 소녀에게 주고 싶어 탄 것은 호두이다.’이다. 앞서 〈소나기〉의 정진을 탐구할 때 초반에서는 ‘밤’이었던 것이 정진으로 설정한 본에서는 ‘호두’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얽힌 상징성으로 북유럽에서 젊은 남녀가 ‘호두’를 가지고 사랑의 점을 치는 풍습, 로마의 결혼식에서 호두를 던지는 습관 등을 학생들에게 언급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2차시

* 다음 과정에 따라 모듈별로 영상을 제작해 보자.

1. 계획하기
 - ‘소나기’의 어떤 장면을 가져올 것인가?
 - 영상의 유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2. 아이디어 구상하기
 - 다양한 장면 중 왜 그 장면을 선택했는가?
 - 선택한 장면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 재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제작한 영상의 제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3. 모둠 내 역할 분담하기
4. 영상 개요 작성하기
5. 주제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하기

2차시에서는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 본 활동을 위한 모둠원을 구성하고 대략적인 계획을 미리 구상해오도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양한 영상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활동의 절차를 알려주도록 한다. 활동의 절차는 ‘계획하기-아이디어 구상하기-모둠 내 역할 분담하기-영상 개요 작성하기-주제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하기’이다. 모둠원 모두가 어떤 장면을 어떤 유형의 영상으로 제작할 것인지 토의한다. 토의의 과정에는 성취기준에 맞게 타당한 이유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시킨다. 교사는 토의의 과정에 모든 모둠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회지도하며, 계획서 예시는 아래와 같다.

모둠명		모둠원과 역할	A - 영상 대본 작성 B - 영상 촬영 C - 소품 D - 편집 및 출연 E - 음악 F - 발표 및 출연
영상유형	영화의 일부장면		
‘소나기’에서 가져올 장면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녀가 죽은 것을 들은 소년의 모습		소녀의 유언을 바꾼다. 젊은 남녀가 ‘소나기’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새로운 결말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 결말은 소녀가 원작에서는 입었던 옷을 입혀서 물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녀가 소년을 사랑했던 마음을 가득 담아 소년을 산 채로 함께 물어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마	
장면을 가져오는 이유는?			
소녀의 유언이 다른 것이었다면 소년의 심정과 태도는 어떠했을지 상상해보고자 한다.			

		을 사람들은 소녀의 유언을 듣고 소년을 산채로 매장하고, 소년은 소리를 지르며 살라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재구성하겠다.	
영상의 제목은?	엽기적인 그녀	제목의 의미는?	여자가 재구성한 결말이 엽기적이기 때문에
영상개요(그림으로 재구성한 장면을 그려도 됩니다.)			

3) 4차시

* 다른 모둠의 영상을 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예)

모둠명 :	영상 제목	엽기적인 그녀
	가져온 장면	소녀가 죽은 것을 들은 소년의 모습
	재구성 방향	소녀의 유언이 바뀌는 것으로 결말을 재구성했다.
	평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 소녀가 죽지 않았을 경우만 생각했었기에 소녀의 유언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 신선했다. - 하지만 ‘소나기’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애뜻한 사랑이 이어지는 분위기의 소설인데, 소년이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모습이 소설 전반의 분

36) 예시 답안의 내용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곽재용 감독, 2001, 36:00-38:40)의 장면을 바탕으로 작성하겠다.

	위기를 피코하는 것 같다.
나의 별점은	☆☆☆☆☆

4차시에는 3차시에서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영상 제작 계획서에 작성한 영상 제작 목적을 먼저 소개하고 영상을 보여주는 절차로 진행한다. 동료 학습자들은 발표한 모듈의 영상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자 작성은 자유롭게 하되 〈소나기〉를 재구성하는 목적의 근거가 타당한지, 가져온 소재와 변형된 소재 간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은 무엇인지, 나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나 칭찬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준다. 교사가 평가할 때에는 영상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학습자들의 참여도, 재구성의 타당성, 근거의 적절함 등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들 간의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소나기〉의 어떠한 장면을 많이 재구성하였는지, 어떤 종류의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는지, 타당성에 대한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도록 한다.

IV.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나기〉에 대한 교육이 문학 지식과 심미성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방향의 교수·학습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선행 교과서와 현행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양상을 살펴 보았다. 교과서 수록 양상을 살펴보기 전 교육과정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자료이자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4차 교과서부터 현행 교과서까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음을 학습활동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소나기〉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해보았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체적인 독자와 근거 있는 작품해석이 교육내용으로 제시되어 〈소나기〉의 새로운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교수·학습 계획은 총 4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그 토대는 작품에 대한 세 단계의 대화로 구성된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이다. 최근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체적인 작품 해석과 평가가 될 수 있는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적용해보았다. 이 교수·학습 계획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시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교수·학습 계획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수자, 학습자, 성취기준 분

석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은 먼저 새로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소나기〉 교육은 장르 이론과 심미적 특성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1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활동 내용도 기존의 교과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나기〉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의도했는데, 이는 학습자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경향과 현장의 교실 수업 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책과 〈소나기〉 교수·학습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사실 〈소나기〉 작품 자체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주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기란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소설 수업과 자유학기제 수업의 균형이 맞지 않아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재구성 과 영상 제작, 그리고 발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한 재구성의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감독과 작가, 스태프 등 여러 직업의 인물이 되어 보고, 모듈원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고, 흥미로운 활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이라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보지 못하여 그 효과를 결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가능한 한 광역적인 지역에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보지 못해 제시한 활동 자료가 적절한 문항으로 제시되었

는지, 시간 배분이 적절한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계획한 대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감상과 평가를 제대로 달성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차시에 학생들이 〈소나기〉를 재구성 해 제작한 동영상에 학급의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각 모듈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관찰, 그리고 활동 자료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 세밀한 기준을 가진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향후 〈소나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보완하고 아쉬운 점을 타개하여 〈소나기〉를 교수·학습 하는 새롭고 참신한 교육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교과용 도서

- 교육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 국어·생활국어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1-1》, 교학사, 2010.
- 이승원 외, 《중학교 국어 2-1》, 좋은책신사고, 2011.
-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②》, 천재교과서, 2013.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①》, 교학사, 2013.
- 민현식 외, 《중학교 국어②》, 좋은책신사고, 2013.
-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②》, 천재교육, 2013.
- 이관규 외, 《중학교 국어②》, 비상교과서, 2013.
-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②》, 두산동아, 2013.
- 한철우 외, 《중학교 국어②》, 비상교육, 2013.

2. 단행본

-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김상태, 《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2015.
- 김한중, 《교수학습과 교육심리 84》, 키메이커, 2015.
- 김해옥, 《현대 서정소설의 이해》, 새미, 2005.
- 손영애,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박이정, 2014.

- 우한용 외, 《국어과 창의·인성교육》, 사회평론, 2013.
- 장양수, 《한국현대소설작품론》, 국학자료원, 2008.
-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이론편》, 역락, 2014.
-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3.
- 황순원, 《학/잃어버린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81.
- 황순원학회, 《황순원 연구총서》, 국학자료원, 2013.
- Charles E. May, 《단편소설의 이론》, 최상규 옮김, 정음사, 1990.

3. 학술지

- 김동환, 〈초본(初本)과 문학교육 : 〈소나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김병수, 〈국어과 통합 단원 구성을 통한 친상황적 수업 설계〉, 《2011 한국열린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 라영균, 〈정전과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26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03.
- 류보라·김소현, 〈중학생의 독서와 진로 탐색의 관계〉, 《독서연구》 제33권, 한국독서학회, 2014.
- 박태일,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원본 시비와 결정본〉,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 박창흠, 〈국어교과서 읽기 영역 “단원 활동” 변화 양상 연구 : 제1~7차 교육과정기의 중1 국어교과서 “읽기 영역” 소단원을 대상으로〉, 《독서연구》 제30권, 한국독서학회, 2013.
- 정현선, 오은하,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9권 제2호, 2016.

최지현,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 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새국어교육》 제8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4. 학위 논문

강명숙, 〈학습자 활동 중심의 소설 교육 방안 연구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김서영,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 :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김주혜, 〈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을 위한 문학치료적 국어교육방안 연구 : 황순원 〈소나기〉, 이청준 〈눈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배운민, 〈중학교의 〈소나기〉 소설 교육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 : 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이광화, 〈모둠토의 활동을 활용한 현대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노재두 마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이지은,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전미진, 〈교과통합을 통한 음악극 〈소나기〉 만들기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한진주, 〈매체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소나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한효진, 〈학습자 주도 문학읽기교육을 위한 상위인지적 전략 방안 연구 : ‘날개질문’과 ‘자기점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5. 영상자료

- 곽재용, 《엽기적인 그녀》, 2001.
곽재용, 《클래식》, 2003.
류승완, 《베테랑》, 2015.
임권택, 《서편제》, 1993.
조수현, 〈으르렁〉, 2013.
홍수아, 〈금요일에 만나요〉, 2013.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Method the Modern Novels in Middle School

Kim, Seon Ah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eek how to educate Hwang Sun Won's literary work <Sonagi> effectively to middle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this paper arranges how the literary work has been educated 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A study curriculum is a systematically organized schedule to accomplish the goal of education. The curricular composition and contents have been modified. And a textbook is the reference based on curricular document and it helps to connect the curriculum and school education field.

One of the distinct feature of Hwang Sun Won's short story is pure lyricism. In his short novels, Especially in <Sonagi>, The poetic impression through short and concise sentences as well as the visual images, symbolic writing materials and sentiment in the sentences arouse the lyricism.

His work <Sonagi> has been consistently included in Korean textbook from 2nd textbook to current revised textbook in 2011 which shows that it

have literary and educational valu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educational contents of each curricular time and textbook focusing on the fact that 〈Sonagi〉 has been continuously included in textbook. Also, this paper identifies how educational contents are implemented and modified.

Second, this study suggests teaching-learning scheme with relating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which is recent topic of educational world and 〈Sonagi〉. This paper finds the method to pursue dreams and talents by students and to lead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through various activities to enable students to independent appreciation, new literary perspective.

This study will support in a follow-up study.